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영옥^{1*}, 오향련²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²가야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Male Nursing Students

Young-Ok Lee^{1*}, Wu XiangLian²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K남, 북도에 위치한 5개 간호대학 2-4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진행하였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2.06, p<.001$) 20.8%의 설명력을 보였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전문직관($\beta=.28, p=.001$), 전공만족도 중에서 만족($\beta=.23, p=.006$), 동아리활동($\beta=.19, p=.02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년에 따른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gender role conflicts, professional nursing valu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male nursing university student. Data were collected from 127 male nursing university student in grade 2-4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July 1 to November 30, 201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SPSS Win 24.0 progra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redictor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we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beta=0.28, p=.001$), satisfaction with major ($\beta=0.23, p=.006$), club($\beta=.19, p=.020$) and the regression equation explained 20.8%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provide career educational programs considering according to the academic year of male nursing students an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Keywords : Gender Role Conflict, Professional Nursing Valu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le Nursing Students

본 논문은 창신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oung-ok Lee(Changsin Univ.)

email: 13293@cs.ac.kr

Received April 2, 2019

Accepted July 5, 2019

Revised May 27,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로 특히 대학생의 관심사 이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1] 구체적인 진로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2]. 최근 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열의가 커지고, 그 경쟁은 치열하면서 취업이 유리한 학과를 선택하고[3], 특히 간호직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확대, 직업의 안정성, 높은 보수, 그리고 남성의 희소성으로 인한 직업적 전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남자들이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4].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5], 이는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행동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5]. 진로 준비 수준의 행동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들의 간호행위에 대한 동기와 포부에 영향을 미치며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의 이직율은 감소하고 현실적응력은 향상된다[6]. 또한 진로 준비 시기가 빠를수록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7].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와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간호전문직관, 진로유형, 진로결정수준[3, 4, 8, 9] 등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다. 선행연구의 관련변인과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남자 간호대학생이 여성지배적인 진로를 선택하여, 그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남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에 도전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10]. 성역할 갈등이란 내면화된 남성 성역할로 인해 자신 혹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11],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성역할 갈등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성역할 갈등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준다[11]. 남자 간호대학생은 산부인과 병동 실습을 할 때 대상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간호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수업 시간에 남학생의 입장에서 전혀 공감감이 안 되는 여성중심의 환경은 남자 간호

대학생에게 심리적 갈등을 겪게 한다[12]. 그 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퇴율은 여자 간호간호대학생 보다 높다[13]. 남성이 여성 지배적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자신의 진로결정과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할 것이다[14]. Kim[14]의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정체성, 성역할 갈등은 진로결정에 가장 견고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좌우하여 간호세계를 보는 의식적 견해를 뜻하는 것으로[16], 간호사의 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으면 간호 업무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으며 바른 가치관과 전문성의 확립과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가 내재되어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고[15]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간호전문직관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직업활동에 대한 이념과 목표가 불분명하여 바람직한 간호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므로 간호 대학생이 이론과 실습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4]. 그러나, 남자 간호대학생은 학과 내의 소수집단으로 인한 정보 부족, 역할모델 부족, 불평등한 실습기회, 협소한 대인관계 등 많은 장애요인들로 하여금 남학생들의 올바른 긍정적인 간호이미지 확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17], 간호전문직관이 올바르게 확립된다면 간호사에 대한 가치, 진로 분야의 전문성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향후 진로를 준비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여성 중심의 간호학과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에 대한 간호교육적 중재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준비

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간호 전문직관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준비 행동 정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준비 행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 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 소속기관에서 기관생명 윤리심의회원(CSIRB - 2018003)승인을 받은 후, K남도 및 K북도 소재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에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한 남자 간호대학생 2,3,4학년에게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무기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린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였다. Ko & Kim[3], Jang & Moon[18] 의 연구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 아진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접한 경험이 있 는 학생들에게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1학년은 제외 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1월 30 일까지 이루어졌다. 대상자 수는 G-power에 따라 다중 회귀분석을 위한 검정력 .90,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동일한 종속변수를 측정할 근거할 만한 Ko & Kim[3] 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중간크기를 사용한 것을 토대로 .15를 적용하여 예측변인 6개로 하였을 때 산정된 대상 자 수는 123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35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29부를 회수하였고, 미흡한 응답 2부를 제외한 127부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 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1) 성역할 갈등

본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O'Neil 등 [11]의 성역할 갈등검사(GRCS: Gender Role Conflict Scale)와 Eisler와 Skidmore(1987)[19]의 성역할 갈등 스트레스 척도(MGRSS: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를 참고하여 Lee 등[20]이 개발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도구(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를 사용 승인 받아 측정하였다. 도 구는 총 37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성공, 권력, 경쟁 8문항, 남성우월 8문항, 가장의무감 3문항, 일·가정 양립 갈등 6 문항, 감정표현 억제 7문항,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5문 항이고 Likert 6점 척도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점에 서 '매우 일치한다' 6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성공, 권력, 경쟁 .88, 남성우월 .96, 가장의무감 .84, 일·가정 양립 갈등 .88, 감정표현 억제 .91,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 제 .92이었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Yeun 등[15]이 개발한 간 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도구 개발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5문 항, 간호실무 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으로 구성 되었고 부정형 문항인 간호의 독자성 3문항은 역환산하 여 분석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 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Yeun 등[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이 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하 위요인별 신뢰도는 전문직 자아개념 .66, 사회적 인식 .81, 간호의 전문성 .67, 간호실무 역할 .72, 간호의 독자 성 .69이었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Kim & Kim[5]이 개발한 도구를 개발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6개 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 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 Kim[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independent t-test, ANOVA를 이용하고,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3.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 행동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 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총 127명이다. 학년은 3학년이 47.2%, 종교는 없음이 63.0%, 동아리 없음이 54.3%, 성적은 평점이 3.0~3.9점이 65.4%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55.1%로 가장 많았고 희망 취업지는 대학병원이 34.6%, 2차병원 27.0%, 공무원 17.5%, 기타 20.5%순이었다. 대상자의 72.4%가 졸업 후 병원에서 간호사로 계속 근무 할 예정 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들이 취업준비 시 주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인터넷, 취업포탈 사이트 46.4%, 친구나 선배, 지인은 33.6%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7)		
Variables	Category	n (%)
Grade	2	35(27.6)
	3	60(47.2)
	4	32(25.2)
Religion	No	80(63.0)
	Yes	47(37.0)
Club	No	69(54.3)
	Yes	58(45.7)

Grades in college	3.0 under	29(22.8)
	3.0~3.9	83(65.4)
	4.0 over	15(11.8)
Motivation for admission	Beneficial to find a job	39(30.7)
	On the advice of parents or others	32(25.2)
	fit in aptitude	31(24.4)
	Valuable work	16(12.6)
Satisfaction with major	Others(Score, Stable job)	9(7.1)
	Satisfied	70(55.1)
	Moderately	43(33.9)
Desirable job after graduation	Dissatisfied	14(11.0)
	University Hospital	44(34.6)
	General Hospital	34(27.0)
	Public official	22(17.5)
Willing to work continue in hospital	Others(school nurse, occupational health nurse, foreign nurse)	26(20.5)
	Yes	92(72.4)
Employment information	No	35(27.6)
	Internet/Employment portal site	58(46.4)
	Book, Magazine	11(8.8)
	Friends Senior, acquaintance	42(33.6)
	Preferred Hospital	14(11.2)

3.2 연구대상자의 성역할갈등, 간호전문직관, 진로 준비행동의 정도

대상자의 성역할갈등,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역할갈등은 평균평점 6점 만점에 3.43±0.09점, 간호전문직관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66±0.05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 준비행동은 평균평점 4점 만점에 2.74±0.04점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정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활동, 동아리활동, 전공만족도, 졸업 후 병원에서 계속 근무 예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종교활동이 있는 경우(t=7.34, p=.008), 동아리활동이 있는 경우(t=9.61, p=.002), 간호학전공에 만족하는 경우(t=7.94, p=.001), 졸업 후 병원에서 계속 간호사로 근무할 경우(t=6.16, p=.01)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independent variables (N=127)

Variables	Category	M±SD	Min	Max
Gender Role Conflict	Total	3.43±0.09	1.62	5.51
	Success, power, competition	3.87±0.09	1.00	5.50
	Male chauvinism	2.65±0.13	1.00	5.88
	Strong responsibility for raising family	4.46±0.10	1.00	6.00
	Conflicts in work-family balance	3.83±0.10	1.17	6.00
	Suppression of emotional display	3.48±0.11	1.00	5.86
	Suppression of affection to male	2.83±0.13	1.00	5.80
	Professional Nursing Values	Total	3.66±0.05	1.34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79±0.63	1.00	5.00
Social awareness		3.61±0.65	1.25	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3.78±0.60	1.60	5.00
The role of nursing service		3.85±0.65	1.25	5.00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riginality of nursing	3.04±0.94	1.00	5.00
		2.74±0.04	1.25	4.00

Satisfaction with major	Valuable work	2.96±0.36	7.94 (.001)	a>b,c
	Others (Score, Stable job)	2.73±0.49		
	Satisfied ^a	2.89±0.50		
	Moderately ^b	2.57±0.44		
Desirable job after graduation	Dissatisfied ^c	2.51±0.48	2.40 (.072)	
	University Hospital	2.72±0.44		
	General Hospital	2.73±0.62		
	Government employee	2.58±0.48		
Willing to work continue in hospital	Others(school nurse, occupational health nurse, foreign nurse)	2.95±0.36	6.16 (.014)	
	Yes	2.81±0.51		
Employment information	No	2.57±0.41	1.15 (.336)	
	Internet/employment portal site	2.77±0.46		
	Book, magazine	2.95±0.60		
	Friends, senior, acquaintance	2.71±0.50		
	Preferred hospital	2.54±0.53		

Table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Variables	Category	M±SD	t or F(p)	Scheffé
Grade	2	2.67±0.63	0.89 (.412)	
	3	2.73±0.42		
	4	2.83±0.50		
Religion	No	2.65±0.48	7.34 (.008)	
	Yes	2.89±0.50		
Club	No	2.62±0.46	9.61 (.002)	
	Yes	2.89±0.50		
Grades in college	3.0 under	2.57±0.45	2.32 (.103)	
	3.0~3.9	2.79±0.51		
	4.0 over	2.79±0.44		
Motivation for admission	Beneficial to find a job	2.65±0.48	1.99 (.085)	
	On the advice of parents or others	2.63±0.52		
	fit in aptitude	2.86±0.53		

3.4 연구대상자의 성역할갈등,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역할갈등,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간호전문직관($r=.35,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5 연구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종교 활동, 동아리활동, 전공만족도, 졸업 후 병원에서 계속 근무 예정과 성역할갈등. 간호전문직관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2.06, p<.001$) 20.8%의 설명력을 보였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전문직관($\beta=.28, p=.001$), 전공만족도 중에서 만족($\beta=.23, p=.006$), 동아리활동($\beta=.19, p=.020$)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27)

	Gender Role Conflict r (ρ)	Professional Nursing Values r (ρ)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r (ρ)
Gender role conflict	1		
Professional nursing values	-.08(.38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13(.150)	.35(<.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27)

	B	SE	β	t	p	R ²	Adj R ²	F	p
(Constance)	1.54	.29	-	5.42	<.001	.227	.208	12.06	<.001
Professional nursing values	.27	.08	.28	3.40	.001				
Satisfaction with major(Satisfied)	.23	.08	.23	2.83	.006				
Club	.19	.08	.19	2.36	.02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진로준비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평균평점은 3.43(±0.09)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 & Yeom[22]의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 3.23점 보다 높으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의 차이가 상이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역할 갈등 하위 영역 중 가장의 의무감이 4.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3]에서도 가장의 의무감이 4.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가장 의무감이 높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 유형에 대한 Lee[23]의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은 성 역할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학과 생활에서 여학생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며, 졸업 후 임상에서 근무할 때에도 간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압박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평점 3.66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Ko & Kim[3]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평균점수는 3.67점, Kwon & Yeun[4]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한 평균 점수 3.60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하위 영역 중 간호실무역할이 3.85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Ko & Kim[3]의 연구에서 간호실무역할 점수가 높게 측정되어 본 연구와 일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간호대학생으로 임상실습과 수업을 통해 간호의 전문성에 대해 교육받으며 간호사의 실무역할이 확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 간호의 독자성이 3.00점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자 간호대학생이 임상 실습을 통해 간호사의 의사 오더 전달 및 단순 업무 위주의 관찰 실습만 하게 되어 전반적인 간호실무에 대한 이해보다는 간호사의 단면적인 업무 형태만 관찰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향후 진로를 준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간호대학 재학기간 동안 간호의 전문성과 실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교과 외 활동에 간호전문직관 프로그램을 포함시킨다면 진로준비행동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평균평점 2.74점이었다. 이것은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Kim[24]의 연구에서 평균 2.70점과 비슷하였고, 간호학과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Jang & Moon[18]의 연구에서 평균 2.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Ko & Kim[3]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 할 수는 없으나 평균 2.74점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은 대체로

병원간호사로 취업을 원하지만 공무원, 보건교사, 외국간호사 등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이것을 위한 진로준비행동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병원간호사로 취업을 한다는 생각의 진로준비에 대한 소극적인 행위들이 최근 들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이나 높은 토익성적등과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 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아리 활동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남자 간호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남자 간호대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Ko & Kim[3]의 연구에서도 결과가 일치하게 나타났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교 내 연합동아리 보다는 학교 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전공탐구 및 진로탐색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진로를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며 학과차원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도움을 주는 동아리 활동 지지가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주는 일반적 특성의 변수로 전공만족도이다. Jang & Moon[18]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에서도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해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주는 일반적 특성의 변수로 취업 후 지속 여부이다. 취업 후 지속 근무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Jang & Moon[18]의 연구에서 임상근무 지속여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임상근무 지속여부에 따른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성은 $r=.353(<.001)$ 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전문직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진로준비행동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Ko & Kim[3] 연구에서도 약

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간호학과는 졸업 전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인 자세로 행하지 않으며 진로의 다양성 보다는 확립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높을 때 진로준비행동을 잘 이행한다는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보는 시각에 따라 간호학생의 진로목표를 향한 준비하는 행동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여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명목적으로 구성된 변인은 더미변수로 변경한 후에 분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오차의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최종분석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이 고,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전체 설명력은 20.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oo[26]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Jang & Moon[18]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력이 있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도록 간호전문직에 대한 교과 과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년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더불어 진로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과목 및 교과외 과정을 통해 개설 및 운영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알아보고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대상자는 K남도 및 K북도 소재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생을 제외한 남자 간호대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성역할 갈등은 3.43 ± 0.09 점이었고, 간호전문직관 평균평점은 3.66 ± 0.05 점이었으며 하

부영역 중에서는 간호실무영역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의 전문성, 사회적 인식, 간호의 독자성 순이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2.74±0.04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은 동아리활동, 전공만족도, 졸업 후 병원 근무 계속 예정, 간호전문직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전문직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로서 진로탐색 및 진로 선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5개의 지방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간호대학생이 제외되었으며, 남자 간호대학생만의 특징적인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고 일반화된 변수만을 측정하여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S. H. Kwon & J. R.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and young adult's career decision-making: the mediation roles of differentiation of self"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5), 41-61, 2014. DOI: <https://doi.org/10.7466/JKHMMA.2014.32.5.41>
- [2] D. S. Choi & C. Y.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motivational factors and attach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2(1), 115-143, 2003.
- [3] Y. J. Ko &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7(1), 62-71,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62>
- [4] Y. M. Kwon &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2007.
- [5] B. H. Kim &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 Psychology*, 9(1), 311-333, 1997.
- [6] S. G. Lee & J. K. Lee,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1(3). 1-25, 2008.
- [7] A. Ronka & L. Pulkkinen, "Accumulation of problems in social functioning in young adulthood A development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0), 381, 1995.
- [8] K. M. Kwon & E. H. Choi,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n Academic of Public Health Nursing*, 24(1). 19-28, 2010.
- [9] S. O. Kim,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e Education* 22(22), 210-219, 201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2.210>
- [10] J. H. Kim, M. H. Hwang & J. E. Yu, "Gender roles, gender role conflicts, career indecision and vocational identity of korean male college students in male-dominant majors and in female-dominant major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1), 132-142, 2004.
- [11] J. M. O'Neil, B. J. Helms, R. K. Gable, L. David & L. S. Wrightsman,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 335-350, 1986.
- [12] C. E. O'Lynn,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 229-236. 2004.
- [13] J. M. Dyck, J. Oliffe, A. Phinney & B. Garrett, "Nursing instructor's and mal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undergraduate, classroom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Today*, 29(6). 649-653. 2009.
- [14] J. H. Kim, "Gender roles, gender role conflict, career indecision, vocational identity of korean male college students in female-dominant Majors",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16(2), 1-14, 2003.
- [15] E. J. Yeun, Y. M. Kwon & O. H. Ahn, "Development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Nursing*, 35(6), 1091-1100, 2005.
- [16] S. S. Han, M. H. Kim, &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e Education*, 14(1), 73-79, 200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 [17] M. K. Ju, & K. Y. Shin, "Nursing image and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in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e Education* 18(3), 510-521,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3.510>
- [18] T. J. Jang & M. 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h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4), p.344-352, 2016.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4.344>

- [19] R. M. Eisler & J. R., Skidmore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development and component factors in the appraisal of stressful situation”, *Behavior Modification*, 11(2), 123-136, 1987.
- [20] S. Y. Lee, I. S. Kim & J. H. Kim, “Development of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R research Repor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 stitute, Korea, 129-132, 2011.
- [21] H. M. Hwang & M. J Kim,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to turnover intention for men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1), 32-41, 2017.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7.23.1.32>
- [22] H. O Jeon & E. Y, Yeom,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p.796-807,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2.796>
- [23] E. J. Lee, “Types of male college of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their academic depart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2), p167-175, 2017.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1.108>
- [24] K. H. Kim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 socia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3), p.399-408,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3.399>
- [25] K. M. Lim, H. Y. Kim & G. J. Park, “The influence of nursing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 eration society*, 18(10), p.423-431,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423>
- [26] C. H. Woo, “Speciality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 May.

이 영 옥(Youngok Lee)

[정회원]



- 2012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8년 2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대학생, 적응, 스트레스, 진로

오 향 련(Wu XiangLian)

[정회원]



- 2014년 8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6년 9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인력관리, 간호업무환경, 환자안전, 간호교육